

“중앙승가대 발전에 도움되길…”

법련사 성금 1000만원
아름다운동행 통해 전달

서울 법련사(주지 보경스님)가 승가 교육 및 중앙승가대 발전을 위해 정성을 보냈다.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전달식을 갖고 중앙승가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발전기금 1000만원은 지난 16일 서울 법련사가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한 기금으로, 아름다운동행은 이날 법련사를 대신해 발전기금을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스님에게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법련사에서 승가대 발전에 관심을 갖고 기금을 전해 주셨다”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행스님은 법련사의 발전기금 전달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엠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외국인 눈길 끄는 ‘동국대 썸머스쿨’

6월30일부터 4주간

영화와 불교, 문화유산 체험 등 한류 콘텐츠를 앞세워 지난해 인기를 모은 동국대 ‘인터내셔널 썸머스쿨’이 한층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동국대는 오는 6월 30일부터 4주간 불교, 영화영상, 마케팅, 뉴미디어, 한국어 강좌를 새롭게 추가해 총 13개 강좌를 운영한다. 동국대 국제처는 올해 8회째를 맞는 인터내셔널 썸머스쿨에 40여개국 500여명의 국내외 대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중 외국인 300명이 참여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홍콩 영남대와 홍콩교대, 미국 뉴욕시립대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대, 파리7대학 등에서 학교를 찾는다. 동국대는 “올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이코모스 집행위원과 함께하는 세계문화유산 체험, 사찰탐방 등 문화프로그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문의 및 신청은 동국대 국제교류팀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roy_oh0910@dongguk.edu)로 하면 된다.

홍다영 기자

팔공총림 동화사 함께 합장하며 화합

주지 임명 문제로 놓고 갈등을 빚어온 팔공총림 동화사가 원용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 팔공총림 동화사는 지난 21일 경내 봉서루 앞 광장에서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교구 정상화를 위한 사부대중 산중대회’를 계기로 화합과 상생을 위해 총림 구성원이 합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진제 종정예하(팔공총림 동화사 방장)는 원로의원 성우스님이 대독한 시중(示衆)을 통해 “신임 주지 덕문스님과 함께 팔공총림의 원용 화합된 모습을 보여 달라”며 “앞으로 팔공총림 제반 살림에 대해서는 신임 주지 덕문스님과 임회 위원들에게 맡기고 초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도 산중대회 인사말을 통해 “교구 책임자로

총림 살림 신임 주지와 임회 위원에게 맡긴다
방장 시중(示衆) 발표

성문스님 ‘참회’ 표명
세월호 희생자 추모법회

서 금번 사태에 대해 대중들에게 참회한다”라며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가운데 수행과 포교에 앞서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정예하와 주지 스님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그동안 갈등 양상을 보여온 팔공총림이 화합의 길로 나갈 것이란 기대를 갖게 했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법회로 전환해 열린 이날 산중대회에 참석한 스님들도 총림 화합을 위해 합심하기로 했다. 중앙종회의원 현근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뼈아픈 교훈을 항상 되새기면서 위로는 방장 큰스님을 모시고 모든 사부대중이 합심해 총림의 원용화합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계사 주지 허운스님도 “총림은 수행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종합 수행도량이기 때문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며 “본사 인사문제로 악화된 일들이 서로 소통하고 책임질 수 있는 총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중대회에서는 △향후 팔공총림의 제반 운영은 대중공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단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어

른을 잘못 모신 당사자들은 참회하고 자숙하라 △본 산중대회를 계기로 원용 화합된 총림으로 거듭나기를 서원한다 등 3가지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산중대회 후 성문·현근·허운스님은 종정예하를 친견하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 참회하는 등 화합의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지난 3월20일 차기 주지 임명 이후 2달간 갈등이 증폭돼온 팔공총림 동화사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수습국면에 접어들었다. 신임 동화사 주지 덕문스님은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방장 스님을 잘 모시고, 구성원들과 합심하여 총림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첫째도 화합이고, 둘째도 화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광호 대구·경북지사장



지난 21일 동화사 봉서루 앞 광장에서 열린 ‘제9교구 정상화를 위한 사부대중 산중대회’에서 350여명의 동화사 사부대중은 종정예하의 시중(示衆) 발표와 주지 성문스님의 ‘참회’ 발표에 따라 ‘원용화합 전기’를 마련하는 장으로 회합했다.

“부처님 자비 늘 함께 했으면”

동국대 건학 108돌 ‘수계대법회’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건학 108돌을 맞아 지난 21일 동국대 팔정도에서 ‘동국인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을 전계사로 진행된 수계법회에는 재학생 및 교직원, 시민 등

650여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불명과 계를 받는 수계 의식을 통해 제2건학 원만성취와 새로운 108년을 출발하는 동국인의 단합을 위해 개최됐다. 동국대 정각원은 “이번 법회는 팔정도 청



동여래입상 개보수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법회라 더 의미가 있다”며 “수계를 받는 모든 분들에게

동국대는 건학 108돌을 맞아 지난 21일 서울캠 퍼스 팔정도에서 6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인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지난 21일 열린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2014 이웃종교 화합 주간 개막식에서 KCRP 대표회장 자승스님(사진 맨오른쪽)이 인사말 하는 모습.

‘다름도 아름답다’

KCRP ‘이웃종교 화합주간’ 행사 개막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7대 종교 수장들이 함께 손잡고 우리 사회 종교 화합을 위해 나섰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21일 서울 장충동 엠버서더호텔에서 ‘2014 이웃종교 화합 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웃종교 화합 주간 행사는 유엔이 정한 세계종교화합주간에 회원국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종교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사회 종교 평화와 화합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서 각 종교 대표들을 비롯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종교간 화합을 기원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공동 기도식도 펼쳐졌다. 공동 기도식은 각 종교별 기도예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촛불을 켜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교를 대표해 기도식에 나선 봉선사 성우스님은 “희생자

들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 시옵고 실종자는 무사히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발원했다. 이어 각 종교 대표들은 우리사회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며 모래 위에 ‘다름이 아름답다’라는 문구를 한 자씩 나눠찍는 샌드아트 퍼포먼스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다름도 아름답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웃종교 화합 주간 행사는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7월4일부터 8월17일까지 7회에 걸쳐 이웃종교 성지나 종교시설을 방문해 체험하는 ‘이웃종교 스테이’와 오는 10월 중순경 전국 종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맘을 흘리며 소통하는 ‘전국 종교인 화합대회’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KCRP 대표회장 자승스님은 “문화와 언어, 종교 등 서로 차이와 다름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다름이 아름다울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 자리에 모인 7대 종교 수장들과 운영위원들이 함께 앞장서서 다름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엠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창조관광 미래 여는 씨앗”

템플스테이 운영자 한마당

전국의 101개 템플스테이 운영자실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스님과 재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제4회 템플스테이 운영자 한마당을 개최했다. ‘2박3일의 서울포행 수도스테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지

난해 템플스테이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참가자들은 요리소 비빔 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중인 간송문화전을 관람했으며, <순정만화> <26년> 등으로 유명한 만화가 강풀 씨의 초청강연을 들었다. 단장 진화스님은 “운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이 있었다”며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영글어 템플스테이가 창조관광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씨앗으로 자리잡았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제17회

어린이·청소년 참선명상 수련회 모집

아이들에게 인내심과 창의력, 사고력을 키워주고 참선명상을 통한 감성지수를 높여 주시려는 부모님께 권합니다. 심성개발과 인성훈련으로 사물을 보는 시각,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폭을 넓혀 줍니다. 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발표력과 자신감을 심어 줍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인내심을 키워주며,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협동심과 리더십을 길러 줍니다. 부처님의 품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꿈과 용기를 키워 줍니다.

- ▶ **언제** _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 2시 ~ 일요일 오전 12시
- ▶ **어디서** _ 지장사
- ▶ **인원** _ 초·중등학생 선착순 20명
- ▶ **회비** _ 1인 40,000원
- ▶ **준비물** _ 필기도구, 수건 1장, 양말 1켢레, 세면도구, 구급약
- ▶ **교육내용** _ 만남의 시간, 발표력, 예절교육, 부모님 존경(부모님 은혜 값는 경), 찬불가, 108배, 새벽예불, 다도, 청국장 만들기, 산행, 글짓기 시간 등 다수
- ▶ **문의 및 접수** _ ☎ (054)432-1187
www.jijangsa.net 홈페이지 수련회로 가서 신청
- ▶ **송금처** _ 국민은행 812-01-0134-991 까치마을회(접수시 회비 입금 바랍니다)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회 · 백마산 지장사



중앙종회의원 연수 공고



중앙종회는 종회의원스님의 의정활동 지원, 종단 현안 및 사회 현안의 식건과 유대 강화를 위해 매년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기2558년도 중앙종회의원 연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승려 연수교육에 관한 령’ 제14조 제2항에 근거한 종단 연수교육으로 인정
- 연수일정
 - 일 시 : 2558(2014). 6. 23(월) ~ 24(화), 2일간
 - 입 재 식 : 23일(월) 오후 1시 30분(오후 1시부터 접수)
 - 장 소 : 국제회의장(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內)
- 연수내용
 - 제15대 중앙종회 활동경과
 - 원시경전과 한문경전의 비교(재연스님)
 - 불교인문학 강의 (조성택 교수)
 - 현대 한국사회를 말한다(홍세화)
- 연수문의 전화 : 02-2011-1864~1869(중앙종회 사무처), 팩스 : 02-733-8286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 적